

FROM THE DEEP

“ 글썸다, 뭐, 나야 자네가 노틸러스에 타겠다는 데에, 말할 것이야 없다
만은. ”

하고 끝마치는 것이, 입이 쓰다. 거짓말, 걱정이 훤히 보이는 걸요, 마르타. 마르타 엘리자벳. 세간의 평으로는 괴짜 대부호라지. 그러나 나는 감히 그녀를 진정한 인간이라 할 것이다. 그녀는 그녀 자신이 얼마나 나이를 먹던지, 마르타로써 인간의 가족을 뒤집어썼으니. 입가에는 주름이 늘고 머리가 눈으로 물들며 두 눈은 깊은 빛을 띄는, 그런 구시대적인 자연스러움 따위를 거부하지 않는 여인을 감히 괴짜라고 하기엔 나는 너무도 어리숙하게
에. 마르타는 다시 느긋하게 입을 열고 웃었다.

“ 이보게, 자네는 무엇을 찾고 싶은게야, 응? 돈이라면 내가 충분히 줄 테고, 명예야 충분하잖나? ”

그렇게 잔뜩 집어삼키고도 무엇을 더 먹고 싶은게야. 탐욕인가? 생물로써의? 아니면, 인간으로써의 탐욕? 장난스레 킬킬거리며 웃는 늙은 대부호는 유리잔을 흔들며 얼음의 소리를 울렸고 두 여름빛 눈동자가 잔 속의 폭풍을 응시했다. 당신이나 나나, 이제와 말하지만 그다지 평균적인 신체는 아니니 걱정할 만하지. 나이에 따른 노파심이라기에는 글썸, 마르타께서 그리 섬세하신 분이었던가? 나는 그녀의 장난스러움 속 파묻힌 거대한 걱정을 읽었다.

노틸러스, 기계와 기름, 전자와 원자의 충돌로 더럽혀진 지구의 인간들을 바다 깊은 곳으로 이끌기 위한 정부 측에서의 프로젝트. 정부께서 선정한 우리 세대의 선발대는 윗세대가 실패했던 심해 깊은 곳을 파고들어야 한다. 내세워 보여주는 슬로건이야 뭐, 인류의 미래를 대표, 신세대의 문을 열 네 모 선장의 80일간의 일주라고야 하지만 글썸다, 정부의 말은 민간인의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지. 기계의 그림자는 보기보다 커다랗고. 앞서 판단

하기에도 그렇다만은, 내가 보기에는 그저 바보짓이다.

티타늄보다 강한 뼈대에 비늘처럼 휘어지는 금속성의 새하얀 피부, 아름다운 빛을 원한다면 얼마든지 갈아치울 수 있는 상앗빛 기계안구에, 뺨기를 본질이 곧아 결코 휘어질 일 없는 다리는 어디에든 올라설 수 있고 내장은 다이아몬드보다 튼튼하다. 그런 세상이라지, 지금은. 개조된 몸이 가짜 삶으로 인간 행세를 하고, 기계가 집시 옷을 입고 오페라를 부르며, 혼한 공중파에 떠다니는 싸구려 멜로 드라마에는 기계가 인간에게 청혼하는 그런 세상. 또한 그들은 수천년의 고목을 키워 온 인간의 붓을 꺾었다. 결코 늙지 않는 대신에 차디찬 이성만이 지배하는 머리를 갖게 되는 것은 편리한 삶에 대하면 꽤나 싼 값인가? 내가 알기로는, 동시에 세간에 알려지기로는, 거리에 돌아다니는 모두가 그런 삶 속에 만족하고 정부가 늙지 않는 유토피아를 지었다 한다. 기계장치의 태엽 속 유연성 없는 이성들 따위야 공장제 도자기와 다름 없으니, 원.

나는 인간의 긍지를 갖고 살아간다. 마르타도 그러실 지는 모르겠다만은. 솔직해지자 하면, 지금 세상에서 긍지라는 것이 사실 뭐, 별 것은 아니다. 시간에 따라 유기적인 신체의 노화를, 유약한 내장의 울림을, 끝없는 감정의 흐름을 즐기는 것. 마르타는 여태껏 그래왔고 나 또한 그녀와 같이 살 것이다. 나의 몸은 언제나 태어났을 그 때와 같았다. 주름살이 늘고, 머리가 세며, 언젠가는 눈 또한 멀겠지만 이것이 인간의 본질일지도 모르지. 결국, 인간이라는 것 또한, 생물이 아닌가. 마르타는 으레 해왔던 말 대신 마음에 있던 것이나 같은 말을 했다.

“ 이봐, 자네는 나와 같아. 피자에, 쓸모없는 호기심, 거기에다 구시대적인 유물 애호가! 난 자식은 없지만 가끔씩은... 가끔씩은, 그래. 자네가 손녀였으면, 하고는 하지. ”

“ 어르신께서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 유토피아를 좋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흐르는 피에 살기 때문에, 저는 인간이기 때문에. 비단 제가 예술가라서, 그래서 그런 것 만은 아니지요. ”

“ 그래, 그래. 잘 알아. 나나 자네는 이 오웰적인 세계에서는 이방인이나 마찬가지이지. 인간은 변하는 것이 없으면서도 동시에 너무 빨리 달려가고 있어. ”

제 속도를 제 다리가 감당할 수 있는지조차 알 수 없지, 앞을 보지 못하니까! 크게, 호탕하게 웃는 얼굴에 잔주름이 잡힌다. 마흔이나 넘겼을까? 종종 주름져가는 그녀의 모습에서 나는 인간의 본질을 찾고는 한다. 그것이, 작은 발버둥이 그저 단순히 헛수고는 아닐테요. 잘그락거리며 위스키 잔 속 얼음이 자연스러운 잡음을 만들어내고, 이내 그것은 잔을 쥔 손의 인간적인 온도에 녹아 물로 되돌아간다. 마르타는 말없이 그것을 한참 바라보다 주름진 손으로 내 손을 부드럽게 감싸고는 말했다.

“ 자네는 노틸러스의 선장이 될 테지. 여행기를 쓰기에는 생각이 많을테니, 반드시 돌아와 내게 이야기를 들려주게. 최후의 과거일 노인네에게 들려준다 치고. 그리 한다면 여행기를 쓰기도 쉬울테야. ”

“ 좋습니다. 원하신다면 그리 하지요. 당신이 하신 말 중에 틀린 것이야 없었으니만큼. ”

“ 좋아, 좋아. 자네에게 삼 주를 주겠어. 선장이 될 기초 교육은 그 정도면 충분할 테야. 아 참, 잊었구먼. 한 잔 더 하기 전에 자네에게 묻겠네. 뱃멀미를 하나? ”

이런, 무슨 당연한 소리를 하시는지. 나의 무른 살들은 개조를 거듭해 반쯤은 기계가 된 인간과는 달라도 한참 달랐다. 뱃멀미, 차멀미, 심지어는 드물게도 비행기까지. 평소같았다 하면 고쳐내기를 거부하고 붓이나 잡으며 사는 대가라 하기에는 가벼운 것이니 그러려니 할 테지만, 글썽, 이번 일에서만큼은 중요한 요소임이 틀림없고말고. 혹여 있다 한다면 보내지 않으실까, 평소에도 탐탁치 않아하시던 분이니만큼, 내가 몇 초인가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이니 어째서인지 그녀는 만족스런 짐승의 얼굴을 하며 감싸던 손에 힘을 주었다. 짐승의 미소가 따뜻하게 다가왔음은, 이상한 일이 분명하지, 허나 썩 두렵지만도 않았기에. 나는 아직도 유기체임을 놓을 수 없는

미련한 것이지.

“ 자네만큼 삶을 사는 녀석은 또 없을테야. 좋지, 좋아. 자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시간을 비우게. 노틸러스의 길을 찾게 도와줄 테니. 저기, 저 네모 선장 따라서 바닥이나 좀 보고 오게나. 인간이 기계의 길을 찾아준다니, 아하하, 조금 우습지만 말일세. 정부도 이런 꼴이 될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어? ”

“ 하, 하지만 부인. 부인께서도 바닥에 닿는 방법을 알지는 못한다고 하셨을텐데요. ”

“ 아하하, 자네는 아직 순수하군 그래! 생각해보게. 정부가 우리에게 모든 진실을 알려줄 것 같나? 그리고 비싼 정보를 순순히 넘길 인간이 세상천지 어디에 있겠는가? ”

음, 그래. 결코 아니지. 그들은 모든 것을 보고 있음에도 모든 것을 감추고 있으니. 낡은 레코드판에서 녹녹한 박자가 흘러나온다. 앤티크를 수집하는 대부호야 꽤나 있겠지만, 정작 본질을 사용하는 사람은 오로지 마르타 뿐. 많은 이들이 나무보다는 차가운 금속성의 스피커에 위안을 얻고, 시린 색채의 블루라이트와 발광장치의 자식인 홀로그램에 몸을 의탁한다. 이런, 이제 슬슬 판을 뒤집어야겠구나. 그녀의 웃음과 휘어지는 여름빛 눈에서 나는 거대한 생의 의지를 본다. 여름빛 홍채 속 꿈틀거리는 장엄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희게 내려가는 머리의 색채에서 잊혀져가는 사계를. 주름져가고 휘어가는 몸에서 곧고 두터운 고목의 그림자를. 더 이상 찾을 수 없는 빛을, 마지막 노인은 품고 있었다. 레코드판이 뒤집히고, 낡은 소리를 내며 거대한 황동빛 주둥이의 끝으로 소리를 뱉어낸다. 끼리릭, 이제와 찾자 하면 듣기조차 힘든 낡은 금속성의 울부짖음과 함께 돌아가는 축은 내가 듣는 마지막 과거를.

‘ CPU 파손, 냉각장치 손상. 노틸러스 40671, 비상상태로 전환. 밸러스트 탱크 안정화를 시도중입니다. ’

젠장, 젠장할! 망했군. 어찌다가 이렇게 된 것이지? 왜? 뭐가 잘못되었기에? 그러게, 닿지 못한다 했을 그때부터 포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건 기초 교육에서도 가르치지 않았잖아? 완전 망했다고! 찢어질 듯 날카롭게 파고드는 차가운 기계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울리며 뒤엉킨 뇌내를 비집고 박힌다. 우리는 망했나? 우리는 아직 바닥에는 닿지조차 못했다. 기괴하게 일그러지다 그제서야 빛나기 시작하는 부드럽고도 작은, 시리도록 빛나는 겨울빛 비늘들과 생을 보이는 창이 공허하게 비어 유령으로밖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상어. 공허한 깊음 사이에서 크리스마스 트리보다 밝게 빛나는 작은 달팽이들. 시선을 빼앗기기에는 충분했으나 인간 본질의 신체는 따지고 보자면 단순히 고깃덩어리였다. 기관 아래 두었던 양동이에 뱃멀미로 속을 뒤집어내기를 대여섯 번. 개조하지 않은 인간의 점막은 고통스러울 정도로 수압에 취약해 코 아래로 진득한 피를 흘려대기도 비슷하게 대여섯. 대략 한 시간 전까지만 해도 나는 기관 가장자리를 붙잡고 양동이에 구토를 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포기하기에야 한참이나 일터. 우리는 정부의 낡아빠진 자료들보다 배는 많을 경험들을 눈으로 보았으니만큼, 바닥에 닿는 것이 노틸러스가 되리라!

“ 으음, 슬슬 타이타닉이 보이는 것이, 우리도 꽤나 언더 독인가 봅니다, 선장. ”

“ 보이는 것이 더 신기한데, 클레어. 나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그 눈이라는데, 원래부터 그랬나? ”

“ 뭐, 그렇죠. 이거 완전 좋아요! 선장도 써보시면 아실텐데! 선장처럼 고치지도 않고 맨몸으로 내려오는 사람은 없었는데. 으음, 무슨 짓을 하는거람, 나도. 선장도 참, 고생하네요. ”

“ 애초부터 고치지 않는 사람이 있기는 했나? 요즘 애들은 애초부터 고친 몸이라며. 나나 그분이 조금, 그래 그, 괴짜인거지. ”

“ 하긴, 뭐. 그것도 그렇네요. 아니, 정말, 왜 그런 거예요? 뭐가 아쉬워서? 그래핀이고 나노튜브고 이제는 흔해빠진 재료잖아요? 선장이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

클레어의 겨울빛 눈동자가 어이없다는 듯 나를 보는 것이 아니꼽지 않다고는 못하겠군, 으음. 뭐어, 그것이 틀린 말이야 아니다. 부족함 없이 살아왔다고야 못하겠지만 지금은 부족함이 없는 것을 넘어 분에 넘치는 생활이니 만큼. 바라다면야 얼마든지 빛나는 것들로 몸을 만들 수도 있다. 다만 내가 인간을 원하기에, 인간으로 남을 뿐. 기계와 생의 경계가 허물어 흩어져가는 풍요의 시대에 조금만 더 어리게 났다면 선택이란 상상조차 못할 일이지. 태어나자마자 뜨지도 못하는 눈과 피부를 갈아치우고, 들어오는 소문이라야 믿을 것이 되거나 못한다지만, 근래에 들어서는 달리 배를 찢어가며 낳지 않아도 좋다 한다. 시험관 아기라던가, 그런 류의 것들 말이다. 잘 된 일이라야 잘 된 일이겠지만서도. 인간성에 대해 내가 감히 할 말이야 없다 만은, 이제와 생각하건데, 생물로써의 인간은 역사의 뒤편길로나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기에.

‘ 노틸러스 40671, 하부 엔진 부분파손, 원자로 재가동을 시도합니다. 상부 엔진 중지 경고. 축전지실 누수 경고. ’

스피커에서 흐르는 날카로운 알람음이 귓가를 찢어낸다. 수압이 높아지고 우리가 바닥으로 처박힐 수록 이 불쌍하디 불쌍한 작은 고철 덩어리는 어딘가 성한 곳이 줄어드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불쌍하고 낡은 것. 스읍, 하아. 본디 조직이라는 것이 대가리가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되는 것 없기에, 내가 하는 것이라고는 기관 앞에 주저앉아 폐부 깊숙한 곳까지 차가운 공기를 들이쉬는 것 뿐이지만. 우리는 내려가고, 더 깊이 내려간다. 얼마 걸리지도 않았던 그 때에, 대략 두어 시간 정도 지났을 즈음에, 텅, 하고 금속성의 선체가 무언가에 닿는 소리가 났다. 클레어는 빠르게 좌표를 쳤고 우리는 비로소 이곳이 바닥임을 알았다. 어두컴컴했다. 그저 고독만이 가득한, 근본적인 어둠. 어쩌면 조종실의 전등이 나가 더 그렇게 느꼈을지도 모를 일이지.

“ 자, 선장. 선장이 이런 걸 싫어하는 건 알지만 우리의 목적은 탐사잖아요? 난 팬찮지만 선장은 아니니까. ”

안경을 받아 쓰고도 나는 한참을 움직이지 못한 채 앉아있었다. 가슴을 파내는 지독한 공허를 채우기 위해, 수압에 고통받는 혈관 사이로 흐르는 피들이 속도를 달리 했기에. 십여분을 주저앉아 가쁜 숨으로 보내고 나서야 맑아진 시야가 눈에 들어왔다. 우우웅, 커다란 하울링이, 고래의 외침같은 커다란 하울링이 고요의 정적을 밝히고 커다랗고 동그란 눈이 고요 속에서 나를 응시하고 있음에서 나는 무엇을 보았는가. 생의 의지를, 깊음 속에서 움트는 생의 의지를. 결코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커다란 생물을 따라 움직이는 좌표는 노틸러스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우리는 말하리라.

“ 깊은 곳에서부터, 인간은 움트는 생의 의지를 알기를. ”